



차 례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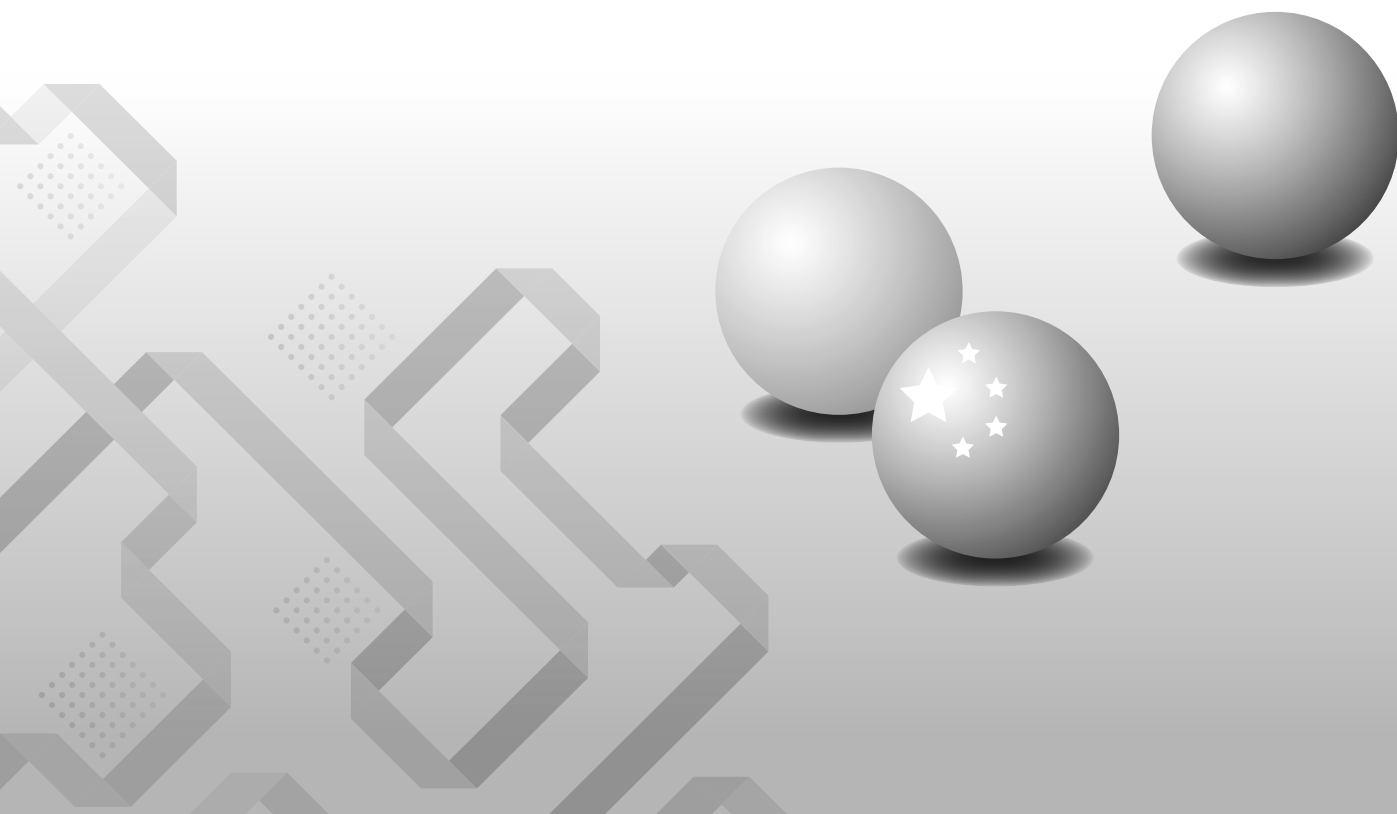
이슈와 진단	02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중국 지방정부 정책 동향	14
쓰촨성 '일대일로' 정책 및 성과	
충남 속의 중국	25
백제부흥군과 나당연합군의 격전지, 청양 두릉윤성(豆陵尹城)	
발간목록	32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중국 저장성 공유경제 정책 사례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송영현 책임연구원
전춘복 연구원



중국의 공유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해왔으며, 세계의 공유경제 발전을 선도해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유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의 공유경제는 최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공공성이 담보된 공유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저장성의 공유경제 추진 사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공유경제 선도사례인 저장성의 사례를 살펴보고, 충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 중국 공유경제 발전현황

- 중국의 공유경제는 2015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하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중국공유경제발전년도보고(中國共享經濟發展年度報告2019)>에 따르면, 2018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약 2조 9,420억위안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1.0% 성장한 수치이다.

또한 2018년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분야와 플랫폼 운영 분야의 종사자·활용자수를 합하면 약 7.6억 명에 달한다.

생활서비스 관련 분야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제조, 교통 등 분야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다.

업종별 성장속도를 보면, 제조(생산)능력, 공간, 지식정보 분야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며 의료, 숙박 등 분야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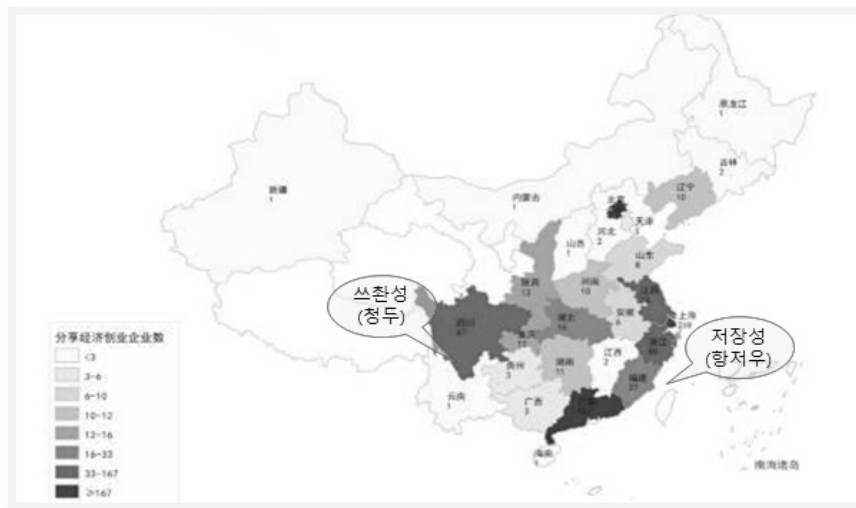
<표1> 2017-8년 공유경제 분야별 시장규모 및 증가율

구분	2017년(억위안)	2018년(억위안)	증가율(%)
교통	2,010	2,478	23.3%
숙박	120	165	37.5%
지식정보	1,382	2,353	70.3%
생활서비스	12,924	15,894	23.0%

의료	56	88	57.1%
공간	110	206	87.3%
제조(생산)능력	4,170	8,236	97.5%

자료: 국가정보센터(2019), <중국공유경제발전년도보고(中國共享經濟發展年度報告)>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공유경제는 북·상·광·선(北上廣深: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동부 연해 대도시에서 발전하였으나, 최근 저장, 쓰촨 등지의 발전속도도 상당히 가파르다. 공유경제 발전 초기에는 동부 연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경제 기업들이 나타났으나, 2016년 이후 위 도시들의 기업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항저우, 청두 등 저장성, 쓰촨성 내 대도시의 기업수가 증가되고 있다.



<그림1> 공유경제 기업의 지역 분포(2018년)

자료: 덩천연구원(2017), <2016~2017공유경제발전연구보고(2016~2017分享經濟發展研究報告)>

- 국가정보센터(2019)는 중국의 공유경제가 향후 3년간 평균 30%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가 정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조업 위주인 국가 산업특성을 반영한 제조업 자원의 공유를 통해 산업 인프라가 크게 확충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를 통해 새로운 소비수요가 창출되고 내수 소비가 크게 진작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는 인공지능, 기술혁신이 대두되는 시기의 새로운 산물로서, 기술발전 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유경제의 발전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전자상거래법(電子商務法) 정비를 통해 공유경제와 관련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간, 의료 등 공유경제 분야의 제도적 정비도 병행될 예정이다.

- 한편, 텡원연구원(2017)은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단계를 총 5단계로 구분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공유경제는 약 100년의 기간에 걸쳐 개인, 기업, 정부, 지방, 전(全)사회의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그간 중국의 공유경제는 개인과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개인(2011-15년)과 기업(2016-20년)의 이윤추구를 위한 신(新)산업영역의 하나로 공유경제가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는 3조위안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8억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활용하게 되었다.

- 최근 들어 기존의 이윤추구형 공유경제의 단점을 완화하고 공익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과 기업 중심의 공유경제 발전이 충분히 무르익게 되자, 이윤추구 위주의 공유경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공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공유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다.

2021년 이후부터 중국정부는 공공의 유희자원 활용도 제고, 주요 도시의 공유경제 전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2036-2111년) 전 사회적으로 공유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가 단순히 경제양식이 아닌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림2>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단계

자료: 텡원연구원(2017), <2016~2017공유경제발전연구보고(2016~2017分享经济发展研究报告)>

II. 중앙정부 정책동향

- 2015년 이후 중국 정부는 일련의 정책행위를 통해 공유경제를 장려해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2015년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차 5중전회에서 공유경제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후 공유경제 발전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2016년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 2017년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關於促進分享經濟發展的指導性意見)> 등을 통해 공유경제 정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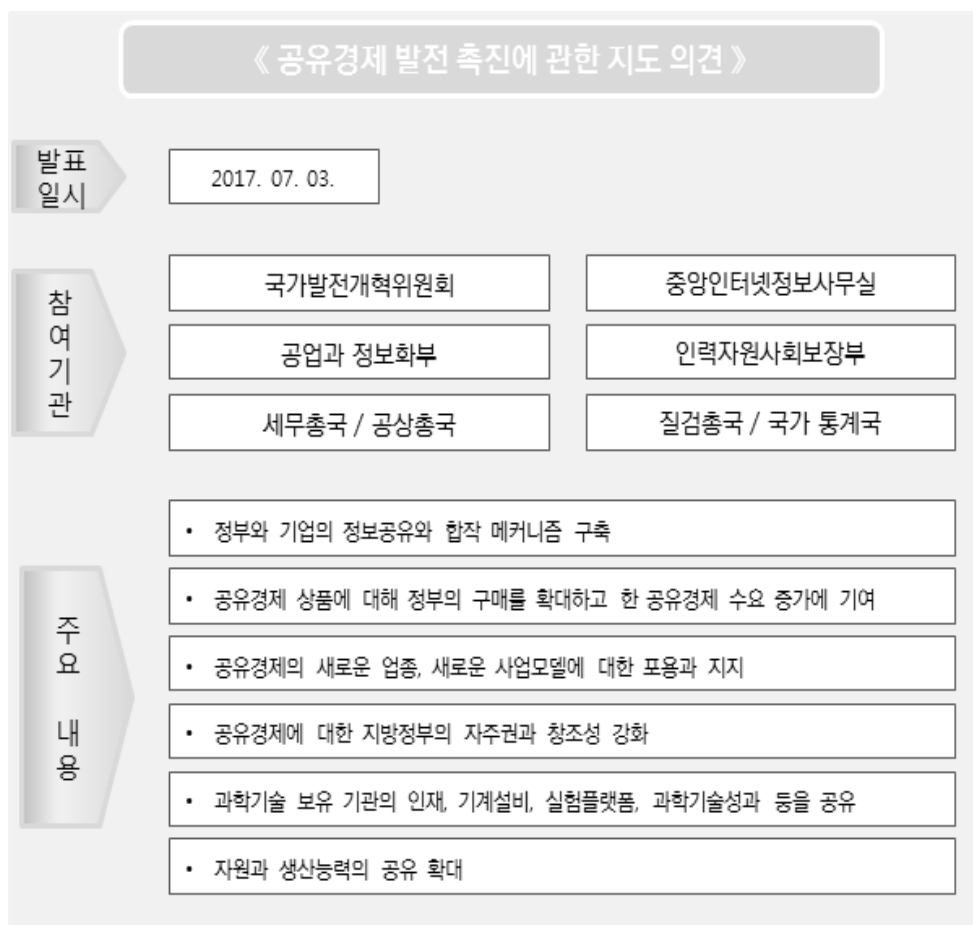
2018년 <공유경제의 건강한 양성발전을 이룩하고 규범화하기 위한 업무통지(關於做好引導和規範共享經濟健康良性發展有關工作的通知)>를 마련하였다. 공유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조치의 일환이다.

<표2> 중국 공유경제 동향

시기	정책 · 회의	내용
2015.10.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차 5중전회	최초 공유경제 지지 선언
2016.03.	제12기 4차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	공유경제의 국가정책화 · 국가정책과 연계한 공유경제 추진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	
	녹색소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2016.05.	중국 빅데이터 산업,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컨퍼런스	총리의 공유경제 지지발언
2016.07.	국가 정보화발전전략 강요	공유경제의 국가정책화 · 국가정책과 연계한 공유경제 추진
2017.03.	제12기 5차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	
2017.06.	국무원 상무회의	총리의 공유경제 지지발언
2017.07.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공유경제 관련 최초의 개별정책 의견
2018.03.	제13기 전국 양회 2018년 정부공작보고	공유경제 정책 실시에 대한 본격화 · 명확화
2018.05.	공유경제 건강한 양성발전을 선도하고 규범하기 위한 공작 통지	공유경제의 부작용 해소 및 규범화 도모

자료: 나승권 외 (2018), 국제사회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2018년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 <공유경제의 건강한 양성발전을 이룩하고 규범화하기 위한 업무통지(關於做好引導和規範共享經濟健康良性發展有關工作的通知)>

-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정부와 플랫폼기업의 합작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 공공서비스 자원 공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7개 중앙부처가 함께 마련한 지도의견이다. 해당 의견은 공공 분야에서도 공유경제와 관련된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한 최초의 정책이다. 제조업 생산 분야,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자원을 공유하며 공급측 구조개혁,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급하였다.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하고 지방정부에 특성을 감안한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 공유경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소비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도 강조하였다.



<그림3>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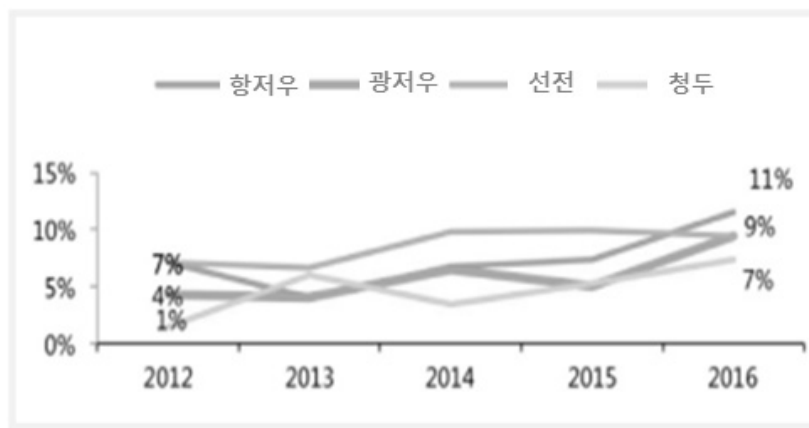
자료: 텡원연구원(2017), <2016~2017공유경제발전연구보고(2016~2017分享经济发展研究报告)>

Ⅲ. 지방정부 공유경제 추진 사례 : 저장성

- 텡쑤연구원(騰訊研究院, 2018)에 의하면, 공유경제 도입 초기에는 연해지역 대도시에 공유경제 발전이 집중되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저장, 쓰촨성 내 대도시의 공유경제 발전추세가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항저우시의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공유경제 발전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두시는 2014년부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도시는 온라인 금융, 스마트 물류, 전자상거래 등의 공유경제 분야에서 이미 전국 수위권을 보이고 있다.



<그림4> 중국 주요지역의 공유경제 기업비율(전국대비, 각년도)

자료: 텡쑤연구원(2017), <2016~2017공유경제발전연구보고(2016~2017分享经济发展研究报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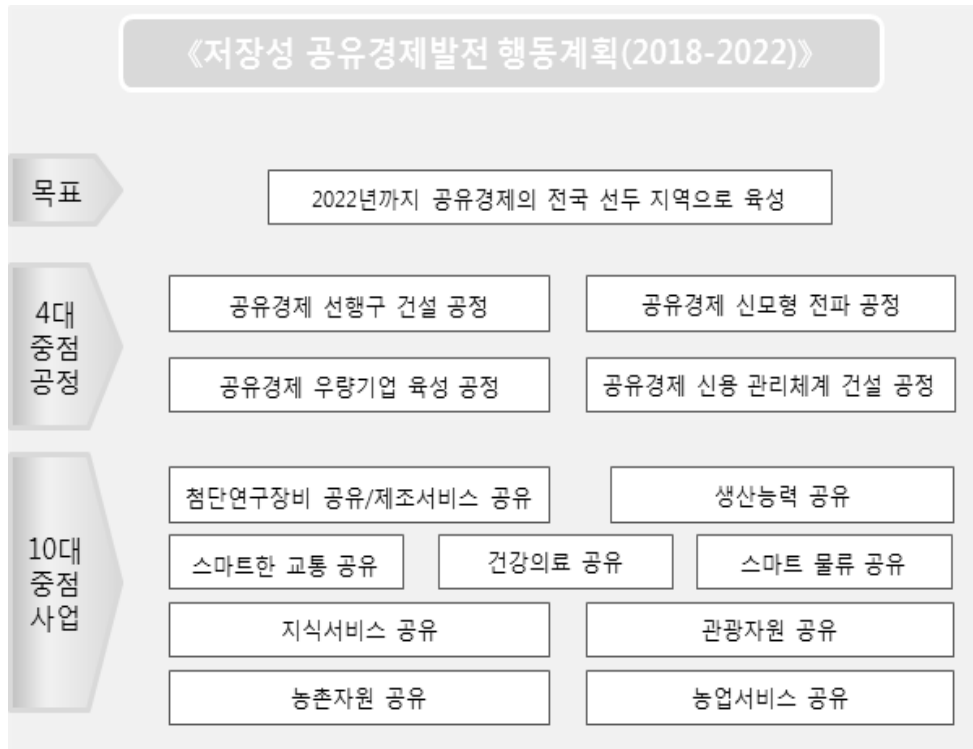
- 항저우시가 소재한 중국 저장성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도출된 <저장성 공유경제발전 행동계획(2018-2022)(浙江省共享經濟發展行動計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7년 <저장성서비스업 4대경제 혁신발전 행동방안(浙江省服務業“四大經濟”創新發展行動方案)>의 주요 내용으로 공유경제를 언급하며, 공유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암시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제시된 <저장성 공유경제발전 행동계획(2018-2022)(浙江省共享經濟發展行動計劃)>에서는 공유경제 분야 발굴, 선도적인 플랫폼 구축, 우량기업 육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5년의 계획기간 동안 경쟁력을 갖춘 세부 공유경제 영역 발굴, 10개 이상의 선도적인 플랫폼 구축, 20개 이상의 유니콘기업과 50개 이상의 우량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4대 중점공정사업과 10대 중점사업을 제시하며 전략적인 공유경제 육성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림5> <저장성 공유경제발전 행동계획(2018-2022)>의 주요내용

자료: 텅션연구원(2017), <2016~2017공유경제발전연구보고(2016~2017分享经济发展研究报告)>

- 한편, 저장성 닝보시(甬波市) 평화구(奉化區)는 공유경제마을을 조성하고 공유경제를 마을의 핵심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평화구 정부는 2017년 5월 <평화구 공유경제마을 건설 공작지도팀 설립에 관한 통지(關於成立區共享經濟小鎮建設工作領導小組的通知)>를 발표하며 공유경제마을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마련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2017년 6월에는 <공유경제마을 건설을 위한 약간의 의견(關於推進共享經濟小鎮建設的若幹意見)>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공유경제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 평화구가 공유경제마을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당시 플랫폼 기반의 유망 인적자원 기업이 저장성 산하 도시인 평화구(奉化區)에 입지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공유경제마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평화구에 인터넷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자원 기업 허위과학기술(合摩科技)이

입지하였다. 이에 따라 인력, 재능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내 여러 공유경제 기업들이 평화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평화구 정부는 허위과학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평화구에 전국 최초로 공유경제마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7월 평화구에서 <공유경제CEO회담>을 개최하였고, 이 회담에서 평화구를 공유경제마을로 공식 선포하였다.



평화구 공유경제 CEO 회담



평화구 공유경제마을 출범식

<그림6> 평화구 공유경제마을 CEO 회담 및 출범식

자료: 온라인 저장망(浙江在線網)

- 평화구 공유경제마을은 마을을 공유경제 거점으로 마련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평화구는 약 3,000㎡ 면적에 관련 부지를 마련하고 공유경제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공유경제를 추진하고자 하나 특히 인적자원과 관련된 공유경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적자원 관련 우수 공유기업이 입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평화구는 주로 산업적 측면의 공유경제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장애인 취업, 퇴역군인의 취업과 같은 사회적 편익 증대형 공유경제 사업 역시 추진 중이다.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 발전단계에 비춰볼 때, 평화구가 추진하는 공유경제가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편익을 같이 추구하는 발전적 형태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평화구 공유경제마을은 마을을 공유경제 거점으로 마련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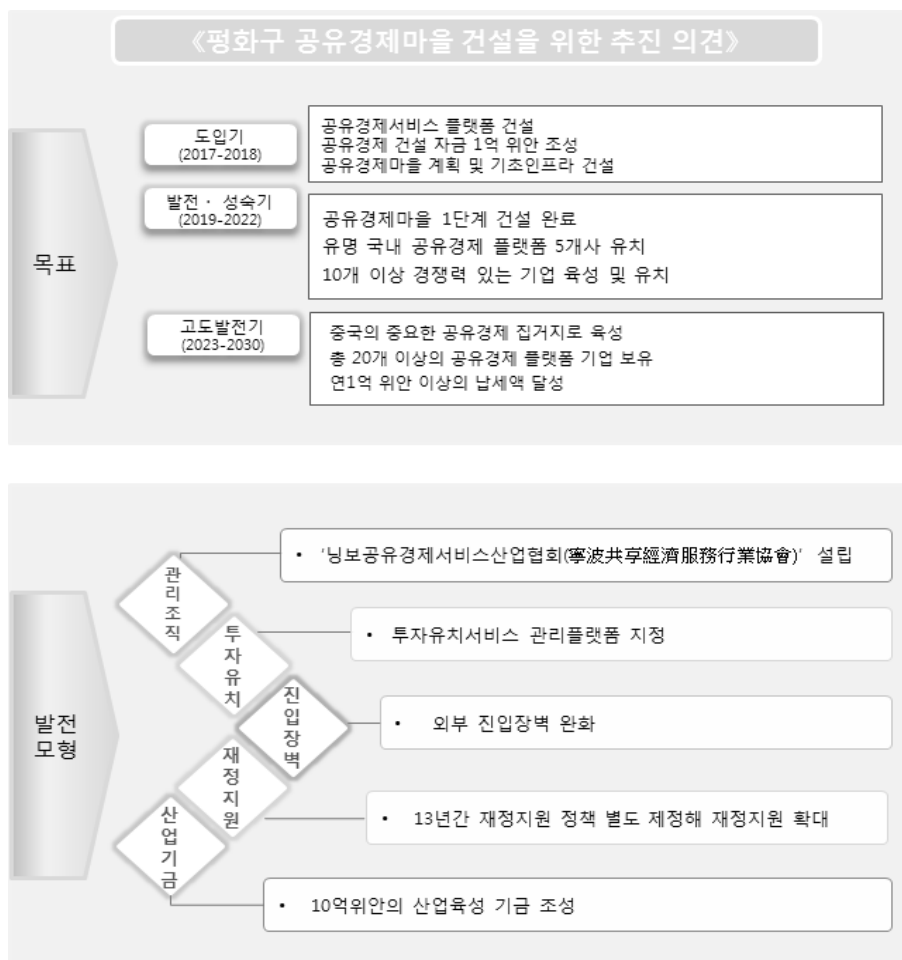
평화구 공유경제마을 조성은 개인, 기업, 개별 정책사업 형태의 것이 아니다. 마을 자체를 공유경제 사업의 단위로 삼고, 공유경제 육성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해당 마을은 중국 내에서 지역형 공유경제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로 등극하였다. 평화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라오닝 쑹산구(中山區) 등도 공유마을을 선언하고 공간, 금융, 양로 등 측면을 중심으로 공유마을 건설 중이다.

- 평화구는 공유경제마을 건설을 위한 정책의견을 내놓고, 발전단계별, 부문별 전략을 추진 중이다.

도입기, 발전성숙기, 고도발전기로 나눠 13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공유경제마을 건설 목표와 함께 관리조직, 투자유치, 진입장벽, 재정지원 분야와 관련된 부문별 지원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유경제의 기본 원리인 확장성,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최초 마을단위 공유경제 정책 추진이라는 선도성도 강조하고 있다.



<그림> 중국 평화구 공유경제마을 건설목표 및 발전모형

자료: 평화구인민정부망(寧波市奉化區人民政府網)

IV. 종합 및 시사점

- 지금까지 중국의 공유경제의 발전동향과 중앙, 지방정부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저장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정책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공유경제가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개인과 기업이 중심이 된 이윤 추구 위주의 단계를 지나, 정부가 중심이 된 이윤·공익 동시추구형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평화구의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가 공유경제마을이라는 주요 거점을 마련하여 공유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추진원리, 발전단계, 핵심목표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전략을 마련, 추진 중이며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충남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유경제를 핵심적인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향후 경기둔화세가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화구 공유경제마을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화구 공유경제마을 사례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공유경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경제 자원 및 기업발굴 등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 형태의 공유경제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공유경제 발전수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축적한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세미나, 포럼 등과 같은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나승권 외(2017),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성영조 외(2018), 경기도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정석완(2018),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한국은행
 國家信息中心(2019), 中國共享經濟發展年度報告, 國家信息中心
 騰訊研究院(2017), 2016—2017分享经济发展研究报告, 騰訊研究院
 寧波市奉化區人民政府網: www.fh.gov.cn
 浙江在線網: <http://www.zjol.com.cn/05zjol/dgzx/hdxx/index.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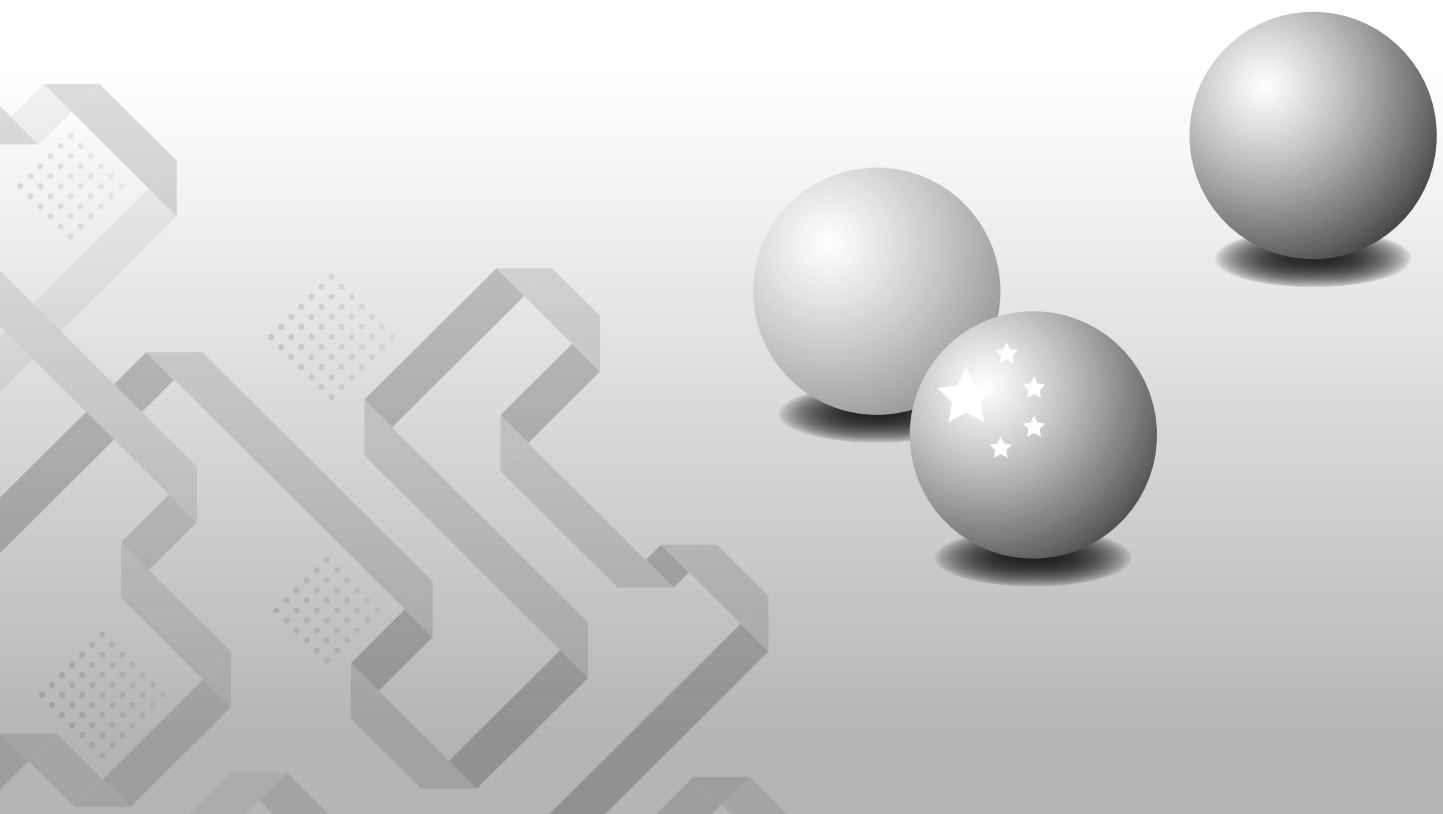
중국 지방정부 정책 동향

쓰촨성 '일대일로' 정책 및 성과

- 쓰촨성 '일대일로' 사업 추진 성과
- 쓰촨성 '일대일로' 전략에서의 핵심도시 _ 청두
- '일대일로' 쓰촨국제우호도시 합작과 발전포럼

전춘복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충남도는 2018년 9월 3일, 중국 쓰촨성과 자매관계를 체결한 바 있다. 쓰촨성은 중국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이자 '일대일로' 전략의 내륙지역 중심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15일 쓰촨성에서 개최한 「'일대일로' 쓰촨국제우도시 합작과 발전포럼(‘壹帶壹路’四川國際友城合作與發展論壇)(이하 쓰촨국제포럼)」에 충남도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 이번 「쓰촨국제포럼」의 6개 세션 중 하나인 '3농 포럼'에 충청남도의 농림축산국과 충남연구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1. 쓰촨성 '일대일로' 사업 추진 성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구상

-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시 처음으로 제시한 육·해상 실크로드는 다음해 리커창총리가 전국양회 정부공작보고회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언급하면서 최근 몇 년 간 중국 최고의 발전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실크로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두루 연결하는 고대의 무역노선이었다면, 오늘날 '일대일로'는 연선국가들과의 무역협작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전반의 교류를 이끌어내고 지역 간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경제 세계화를 구현해내는데 최종목표를 두고 있다.



실크로드 경제지대

- 육상실크로드로서 내륙지역을 잇고, 신장자치구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경제벨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 중국 연해도시를 연결하고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 및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

[그림 1] 중국 '일대일로' 전략 구상도

출처: 아주경제

쓰촨성 ‘일대일로’ 연계 정책 및 사업

- 쓰촨성 인구는 약 8,300만 명이며, GDP는 중국 서부지역 12개성의 20%를 차지해 중국의 서부대개발 사업의 허브로 주목 받고 있다.
 - 사실상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기존 중서부 내륙의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지역들이 선도적으로 대외개방을 함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쓰촨성은 핵심거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쓰촨성 개요

면적 : 48.6만 km²
 인구 : 8,341만 명
 GDP : 40,678억 위안
 행정구역 : 18개 지급시, 3개 자치주

[그림 2] 쓰촨성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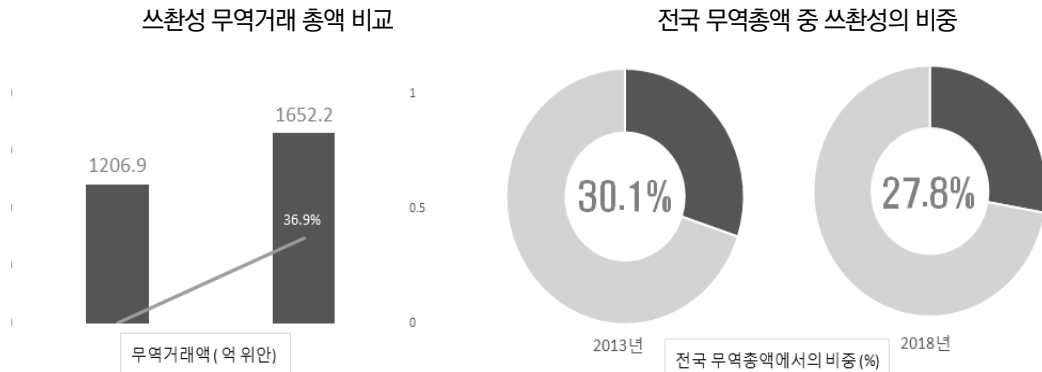
출처 : 바이두

- 쓰촨성은 중앙정부가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한 다음해인 2015년에 중앙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251三年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숫자 “251”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 :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에서 20개 국가를 중점대상으로 선정
 - 5 : 연선 국가들과 50개의 양방향 중대 투자항목 체결 및 ‘중대항목에 대한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1 : 성내 외자기업들 중에서 연선국가들과의 탄탄한 무역거래를 해온 100개의 기업을 선정해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운영실태를 관리하고 무역투자기업으로 중점육성
- 2015년 「쓰촨성의 실크로드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참여 실시방안(四川省參與建設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實施方案)」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일대일로’구상과 연결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 2017년 5월, 쓰촨성의 61개의 프로젝트가 국가 ‘일대일로’사업의 중대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같은 시기에 쓰촨성정부는 국가개혁발전위원회와 「쓰촨성 국제 생산능력과 장비제조의 합작 실시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치들은 쓰촨성이 연선국가들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상을 담고있다.
- 연이어, 2017년 8월 쓰촨성은 추가로 「쓰촨성 ‘일대일로’건설 추진 표준화 사업 실시방안(“壹帶壹路”建設標準化工作實施方案)」을 통해 무역과 투자 절차 간소화, 국제합작 심화, 기술 및 인재 교류 강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7년 말에는 「교통물류융합발전실시방안(推動交通物流融合發展實施方案)」을 통해 ‘팔사삼연(八射三聯)’ 종합운송대통로를 건설해 ‘일대일로’와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팔사(八射)’는 청두를 기점으로 하는 8개의 종합운송통로를 의미하고, ‘3연(三聯)’은 장강 황금수로를 연결하는 3개의 운송통로를 의미한다.
- 2018년에는 주요영역에서 쓰촨성을 국제적인 ‘생산력합작시범성(產能合作示範省)’으로 건설하기 위해 「쓰촨성 국제생산능력합작 3년행동 지침(2018-2020)(四川省推進國際產能合作三年行動指引)」을 발표하였다.

쓰촨성 ‘일대일로’사업 추진 성과

-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이 제시된 지 6년째, 쓰촨성이 ‘일대일로’전략과 연계된 계획 발표와 사업을 실시한지 5년째에 들어서면서 쓰촨성의 사업성과가 눈에 띄게 들어나고 있다.
- 우선, ‘251三年 행동계획’ 추진과 국제적인 제조생산 분야의 합작을 강화한 결과, 연선국가들과의 무역수출입분야에서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쌍방향투자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기 직전해인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무역총액이 36.9% 증가하였고, 5년간 무역총액의 누적 거래액은 7,045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 연선국가들과 중국 위안화를 이용하여 결제한 총 누적금액은 약 749억 위안에 달한다.
 - 해외 공사수주 및 도급 총액은 약 228억 달러에 달하며, 이 금액들은 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 쓰촨성 연선국가들과의 무역거래액 비교

자료 : 중국일대일로홈페이지(中國壹帶壹路網)

- 그간 추진해온 교통인프라 건설로 쓰촨성은 연선국가들과의 교통수송문제에 있어서 요충지로 자리매김 하게되었다.
 - 중-유럽 열차 누적 운행횟수 : 3,320회
 - 화물 물동량 : 총 95만톤 이상, 약 125억 달러
 - 운행노선 수 : 총 12개 국제노선이 국내외 주요 노선 25개와 연결
 - 항공편 : 61개 국제선(국내선 포함 총 114개 노선), 누적 2,613만명 운송
 - 항구건설 : 루저우항과 이빈항(瀘州港, 宜賓港) 중심으로 12개 노선 신규 취항
-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국제적인 산업협작, 대외교류 등 협작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혁신분야에서 쓰촨성은 총 16개의 혁신시험구를 건설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방정부로 꼽힌다.
 - 산업분야에서는 중·독(德)혁신산업협작플랫폼, 중·프(法)생태원, 중·한혁신창업원, 싱가포르·쓰촨혁신과학기술원, 중·이태리문화혁신단지, 중·독(德)중소기업협작원 등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산업협작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 중국-유럽센터를 건설,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국서부국제박람회를 통해 서부지역이 ‘일대일로’ 건설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세계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 이밖에도 “판다가 세계로”, “쓰촨의 불길이 실크도르를 빛내다” 등 지역문화활동을 통해 쓰촨의 아름다움을 세계로 알리는 활동도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2. 쓰촨성 '일대일로'사업의 핵심도시 - 청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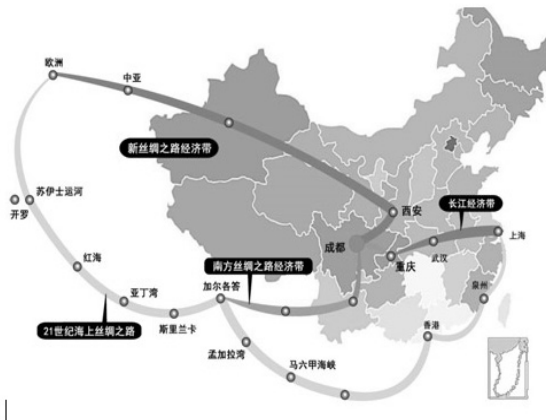
청두시 개요

- 면적 : 14,335km²
- 인구 : 1,633만 명
- GDP : 15,343억 위안
- 행정구역 : 11개 구, 4개 현, 5개 현급시

[그림 4] 쓰촨성 성도 청두시 개요 및 지도

출처 : 네이버백과, 바이두백과

- 청두시는 쓰촨성의 성도(1997년 충칭시에서 청두시로 성도 변경)이며 '일대일로' 국가전략과 창장경제지대 건설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청두시가 '일대일로' 전략에서 가지는 지리적 인 이점, 지역 전통산업 개혁, 신소재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육성, 전자상거래를 통한 현대물류산업 업그레이드 등 산업육성 측면에서의 강점은 청두시가 아세아와 유럽 국가들의 물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2015년 중국 국무원에서는 청두시를 놓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을 제시하였다.
 - 우선, 신실크로드와의 연결이다. 청두를 기점으로 내륙도시 서안시와 신강자치구를 가로 질러 서쪽의 신실크로드와 연결하여 중앙아시아와 유럽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방안이다.
 - 그리고 남쪽으로 미얀마 또는 운남성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의 연결이다.
 - 또 창장경제지대에 위치하는 이점을 활용하여 동쪽으로 충칭, 우한, 상하이로 거쳐 동아시아로 나아가자 한다.



[그림 5] 청두시 '일대일로' 구상과의 교통 연결망

출처: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신문판공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1. 신실크로드경제지대 연결

- 서로 서안, 신강을 통해 신실크로드경제지대와 연결

2.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결

- 미얀마 혹은 운남성을 거쳐 동남아시아와 연결
- 해상실크로드와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연결

3. 동으로 충칭, 우한, 상하이로 거쳐 동아시아로 확대

- 최근 청두시는 '일대일로' 전략에서의 기회를 찾고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9월 「'일대일로' 건설三年 행동계획(2019 - 2021年(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서는 향후 3년간 청두시를 중심으로 하는 입체적인 전략구상을 통해 서부지역의 전략적인 통로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매년 국제항공편 5편 이상 증가 → 국제적인 '육해공 운송통로' 형성
- 국제 철도 7개 노선과 국제 철도와 해운 연결 운송통로 5개 구축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혁신 네트워크 구축 → '일대일로' 인재 자유항 조성
- 서비스 무역업 완화 정책 추진 → 연구개발 분야의 수출 지원
- 빅데이터 등 기술 분야 보급 및 응용 →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방 플랫폼 구축
- 연선국가와 공동으로 '해외중국문화센터' 건설 → 청두국제컨벤션센터 건설 추진

3. 2019 「일대일로」 쓰촨국제우호도시 합작과 발전포럼」



<그림 7> 명상마을 사진들

자료: 浙江特色小镇官网(tsxz.zjol.com.cn)

- 10월 15일 ‘개방합작 · 호리공영(開放合作·互利共贏)’을 주제로 하는 2019 「“일대일로” 쓰촨 국제우호도시 합작과 발전포럼」이 청두에서 막을 열었다.
 - 4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제우호도시지도자포럼, 에너지와 인프라건설포럼, 과학기술혁신포럼, ‘3농’포럼, 무역과 물류포럼, 문화관광포럼 등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쓰촨성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43개 지방정부가 참석하였다.
 - 이번 포럼은 국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기관이 연합 개최한 첫 ‘일대일로’ 우호도시 간 교류활동이며,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규모 및 포괄 영역이 가장 넓은 국제우호도시간 교류활동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혁신



[그림 기] '일대일로' 쓰촨국제우호도시 합작과 발전 포럼 현장 사진

출처 : 쓰촨인터넷뉴스(四川新聞網), 쓰촨신화망(新華網)

[세션1 : 에너지와 인프라건설]

-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세션은 이번 포럼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국제우호도시에서 온 10명의 전문가, 기업가 대표들이 주제를 둘러싸고 발표하였다.
- 포럼에서는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합작에 대해 금융지원, 프로젝트 합작 강화, 산업별 합작 강화 등 3가지 중점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1>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세션 주요 논의 내용

방안	세부내용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한 자금융통 플랫폼 구축 - 해외투자 영역을 적극 탐색 - 투자주체의 다원화 및 합작방식 다양화 등
프로젝트 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및 인프라건설 분야의 자문, 설계, 공사도급, 장비, 운영 관련 기업의 공동 진출 - 시기별 대표적인 프로젝트 공동 합작 등
산업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호지역의 산업발전규획 공동 추진 - 국제에너지산업과 장비제조분야 합작 - 신형산업발전 기회 모색 등

출처 : 온라인쓰촨(四川在線)

[세션2 : 과학기술혁신]

- 과학기술혁신 세션은 ‘개방, 협력, 공유’를 주제로 하고, ‘상호이해 증진과 우호관계 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 포럼에서는 12명의 전문가들이 쓰촨성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산업혁신, 지역의 자원과 결합한 중점 혁신영역 발굴 등 사업의 협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3농’ 포럼



문화관광 포럼



[그림 8] ‘일대일로’ 쓰촨국제우호도시 협력과 발전 포럼 현장 사진

출처 : 쓰촨인터넷뉴스(四川新聞網), 쓰촨신화망(新華網)

[세션3 : ‘3농’포럼]

- ‘3농’포럼은 “일대일로 건설의 새로운 기회를 서로 공유하고 ‘3농’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 페이지를 개척하자”라는 주제 하에 국제우호도시에서 온 학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 포럼은 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농업의 대외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스페인, 중국 청두 등의 전문가들이 논의의 장을 벌였다.
 - 최종적으로는 ‘혁신발전, 조화로운 발전, 녹색발전, 개방발전, 공유발전’으로 합의를 모았다.

[세션4 : 문화관광]

- 문화관광 세션은 ‘함께 논의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공유하자’는 원칙하에 ‘개방협력, 호리공영’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문화관광포럼에는 쓰촨성 16개 우호도시의 지도자들과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포럼에서는 쓰촨성과 교류 중인 국내외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관광객을 송출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나가자고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정책자료 :

- 청두시 '일대일로' 건설 3년 행동계획에 대한 통지(成都市融入“一带一路”建设三年行动计划(2019-2021年)的通知)
- “251” 3년 행동계획(“251”三年行動計劃)
- '일대일로' 건설 표준화 공작실시방안(推進“壹帶壹路”建設標準化工作實施方案)

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 :

四川省人民政府, <http://www.sc.gov.cn>
 成都市人民政府, <http://www.hangzhou.gov.cn>
 中國壹帶壹路網, <http://www.yidaiyilu.gov.cn>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http://www.scio.gov.cn>

기사자료 인터넷 사이트 주소 :

融入“壹帶壹路”四川實施“251”三年行動計劃
<http://scnews.newssc.org/system/20151103/000615887.htm>
 四川省出臺《推進“壹帶壹路”建設標準化工作實施方案》
<http://www.cspress.com.cn/xinwenzhongxin/xingyedongtai/1210.html>
 圖懂 | “壹帶壹路”四川成績單
<https://baijiahao.baidu.com/s?id=1631667488487550953&wfr=spider&for=pc>
 “壹帶壹路”建設成果圖鑒 | 中歐班列發展迅速,看四川打造全面開放新格局
<https://www.yidaiyilu.gov.cn/xwzx/roll/87844.htm>
 未來三年,成都這樣融入“壹帶壹路”建設
<http://scnews.newssc.org/m/system/20191001/000999639.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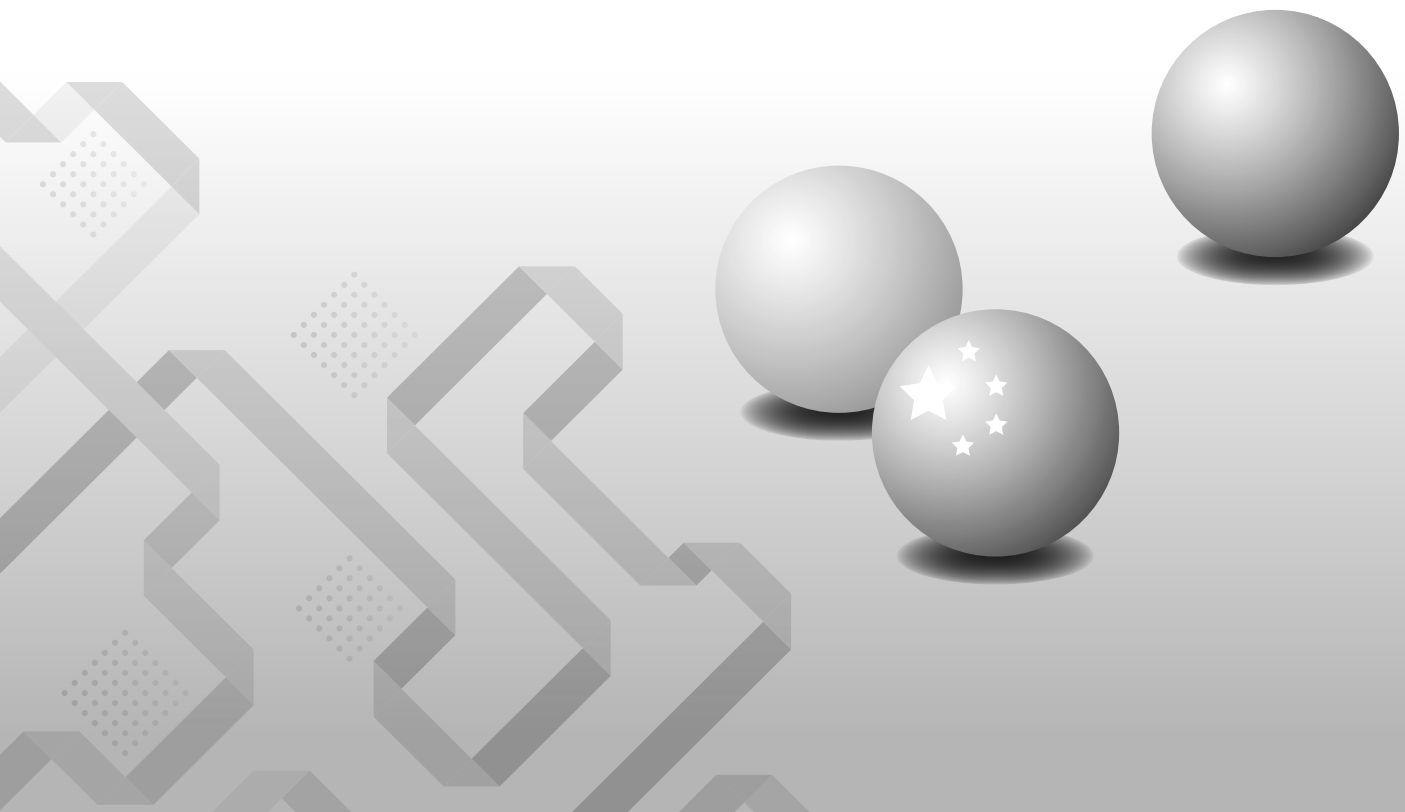


10.

백제부흥군과 나당연합군의 격전지, 청양 두릉윤성(豆陵尹城)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백제부흥운동의 거점, 두릉윤성(두릉산성)

두릉윤성은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와 목면 대평리에 걸쳐져 있는 계봉산 정산에 소재하며 1984년 5월 17일 충남문화재자료 제156호로 지정되었다. 두릉윤성은 두릉이성(豆陵伊城), 두량이성(豆良伊城), 두릉산성(豆陵山城), 도솔성(豆率城), 윤성(尹城)¹⁾, 열이(悅已) 혹은 계봉산성(鷄鳳山城)²⁾ 등 불리는 이름이 다양하다. 두릉윤성 이외 현재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은 두릉산성이다. 이 산성은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백실부락의 뒤쪽에 있으며 높고 낮은 2개 산봉우리의 꼭대기에 둘러싸여 있다. 웅진(공주)과 사비(부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인 두릉산성은 백제 멸망(660년) 이후 한산의 주류성과 예산 임존성, 유성의 내지성과 함께 백제부흥군의 4대 거점 중 하나였다.



[그림] 두릉윤성(두릉산성)의 위치(출처: 다음지도)

두릉윤성은 석축(石築)으로 둘레 약 540m에 달하는 성벽(城壁)이 자연 지형에 의하여 끝없이 굴곡을 이루고 있는데, 남쪽 면은 성벽이 산꼭대기 가까이까지 올라붙어 있고 북쪽 면은 경사면의 산 중간쯤에 반월형(半月形)을 지어 2개 산봉우리 사이의 골짜기를 포용하고 있다. 성은 석축(石築)이나 쌓은 지 워낙 오래 되어 지금은 원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 1) 윤성(尹城)이라는 이름은 지금의 청양 지역에 위치한 정산현(定山縣) 열이현(悅已縣)의 다른 이름이다.
- 2) 청양군 정산면 계봉산에 있는 이 산성은 두릉윤성 또는 계봉산성이라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에 계봉산성은 돌로 쌓은 성으로, 성의 둘레가 1,200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릉윤성 입구 표지석



두릉윤성 원경



두릉윤성 석축 현황



두릉윤성 성벽 석축

[그림2] 두릉윤성 현황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blog.daum.net/hitch/5475519>

두릉윤성 안에는 우물과 군창(軍倉) 터가 있는데, 그 모양이 두루미처럼 생겼다고 하여 ‘두루미재’라고도 한다. 660년(태종무열왕 7) 8월 백제가 멸망한 이후 병관좌평(兵官佐平)이던 정무(正武)가 백제의 유민을 거느리고 이 성에 들어와 웅거하면서 나당(羅唐) 연합군에 끝까지 저항했다고 한다. 성터에서는 새긴줄무늬띠(陰刻線文帶)·물결모양새긴무늬띠(波狀陰刻文帶)가 있는 토기와 청자조각이 발견되었다. 두릉윤성은 백제시대에 왕도(王都) 사비성(현재 부여 부소산성) 북쪽의 국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백제 멸망 후 그 유민(遺民)들에게는 광복운동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³⁾

정무 장군은 나당연합군의 침략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자 자신의 부하와 유민들을 이끌고 이곳에서 본격적인 부흥운동을 시작했고, 한때는 사비성 부근까지 진격하는 등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백제부흥군은 나당연합군에 비한 군사적 열세와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38일간 혈투를 벌이다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두릉윤성은 비록 백제부흥군이 패배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백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백제군과 백성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에 역사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3)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_두릉산성

백제부흥운동의 마지막 거점 주류성(周留城)⁴⁾

서기 660년 7월 18일에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新羅)·당(唐)의 연합군에게 항복하였다. 이후 백제 사람들의 부흥운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점차 흑치상지(黑齒常之)와 복신(福信)이 웅거한 임존성(任存城)과 도침(道琛)이 이끄는 주류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세력이 통합되었다. 그리하여 주류성을 공격하는 나당연합군을 크게 이겼으며, 이러한 기세로 부흥군은 200여성을 회복하였다. 백제부흥군은 웅진성 공격 실패와 웅산성(甕山城)에서의 패배로 그 기세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공격에 전념하고 일본에 있던 왕자 풍(豐)이 돌아와(662년 5월) 부흥운동을 이끌면서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부흥운동세력의 지휘부 내에 분란이 일어나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다시 부여 풍이 복신을 죽이는 데에 이른다. 더욱이 부흥군을 돕기 위해 왜(倭)가 보낸 병사 2만 7천명이 백강(白江)에서 궤멸되고 부여 풍이 고구려로 달아나자 백제의 부흥운동은 이내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따르면, 주류성이 함락되던 날, 국인(國人) 곧 백제의 유민들이 "주류성이 항복하였구나. 일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오늘로서 백제의 이름은 끊어졌구나. 조상의 무덤을 무슨 수로 오갈 수 있단 말이나."라고 탄식하는 말을 남긴 채 퇴각하는 왜군을 따라 왜로 망명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름, 주류성과 두릉윤성⁵⁾

주류성(周留城)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唐書)》에 기재된 이름이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주유성(州柔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나오는 두량윤성(豆良尹城)을 주류성의 다른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⁶⁾ 그러나 같은 책의 문무왕 3년(663) 5월조에 "왕이 김유신(金庾信) 등 28장군에게 함께 두릉윤성(豆陵尹城)[두량윤성(豆良尹城)]이라고도 한다]과 주류성 등 여러 성을 공격하라 명령하여 모두 빼앗았다"고 적힌 기사를 감안하면 두량윤성과 주류성이 다른 성으로 여겨진다.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주류성으로 비정되는 후보지로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학성산성(鶴城山城), 서천군 한산면의 건지산성(乾芝山城), 연기군 전의면의 당산성(唐山城), 전라북도 정읍시의 두승산성(豆升山城), 부안군 상서면의 위금암산성(位金巖山城) 등

4)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주류성〉에 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임.

5) 앞글과 동일

6) 주류성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 《삼국사기》권 제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8년(661년)조에 두릉윤(豆陵尹)·두릉이(豆陵伊)·두량윤(豆良尹)이라는 표기로 언급되는 성이 등장하는데, 《삼국사기》권 제37 지리지 백제조에서 백제 열이현(悅己縣)의 다른 이름을 두릉윤성, 또는 두곶성, 윤성(尹城)이라고 한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권18 정산(定山, 지금의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조에서 "본래 백제의 열이현인데 두릉윤성이라고도 한다"고 한 기록이 있어, 두릉윤성은 대체로 백제의 열이현이 있었던 지금의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에 위치한 계봉산성(鷄鳳山城)으로 비정된다. 《구당서》 및 《자치통감》의 기록, 《삼국사기》 본기와 「문무왕보서」의 기록을 대조하여 나·당 연합군이 공격한 두릉윤성이 바로 주류성이고 두릉윤성과 주류성은 서로 같은 지명을 다른 한자를 써서 표기한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위키백과_〈주류성〉)

이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주류성이 백강(白江)에서 가깝고 "농사짓는 땅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돌 많고 척박한 땅이어서 농사지을 수도 없는 땅이다. 지금은 지켜내는 곳이지만, 싸움이 길어지면 백성들이 굶주리기 쉽다"고 적혀 있어 현재 서천군 한산면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병운동과 3.1만세운동, 마을주민이 잇는 외세 저항정신

두릉윤성이 위치하고 있는 정산면 백곡리 마을 어귀에는 한 그루의 우람한 느티나무 아래 충효문이 있고 근처에 마을주민들의 3·1만세운동을 기념한 백곡삼일운동기적비가 있다. 이 기념비에는 1919년 4월 5~6일에 700여명이 참여해 많은 사상자를 냈던 정산만세운동⁷⁾에서 이 마을 출신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태형에 처해지거나 부상을 당한 이 마을 출신 애국지사 홍범섭·임의재·홍세표·박상종·윤석희 선생을 비롯해 당시의 희생자들의 사적을 기록해 뒀다. 또한 이 마을을 알리는 표지판에 백곡리(백실마을)는 백제부흥운동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때는 의병운동,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만세운동으로 잃어버린 주권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저항운동을 지속함으로써 백제부흥의 혼을 이어가고 있다고 적혀있다.⁸⁾ 백제부흥의 정신을 잃지 않고 마을과 이 지역 주민들이 오롯이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역사는 민초들이 만들어 간다고 했듯이 외세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은 시대를 뛰어넘어 백성들의 가슴속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백제인의 충효와 호국 정신의 城地이자 聖地로 계승해야

청양군 지역사회에서는 멸망한 백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나당연합군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백제부흥군의 애국혼을 기리기 위해 2004년부터 위령제를 봉행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05년부터는 두릉윤성보존현창회가 조직되어 위령제를 문화행사로 정착시켜 두륜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후세에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릉윤성보존현창회(회장 전갑수)에서는 이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발굴과 보존, 선열들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선양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두릉윤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성곽복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7) 정산3.1만세운동은 1919년 4월 5일 오후 3시, 정산장터에서 홍범섭, 임의재, 윤석희, 홍세표, 박상종 등이 앞장서면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권흥규 의사가 일제의 발포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탄압을 당했지만, 4월 6일 광생리 등 3개 마을에서 500명의 만세운동이 계속됐고, 4월 7일에는 와촌리, 신덕리, 내초리 주민 150명이 햇불만세운동을 전개했다. 3.1운동 당시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지만 정산면처럼 2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은 흔치 않다.(금강일보(2019. 03.0 01), 중부매일(2019. 04. 08))

8) 충청매일(2017. 07. 24). [느림보의 山城, 山寺찾기] 청양 두륜산성 가는길.

제16회 두릉윤성 백제 부흥군 위령제는 지난 4월 19일에 봉행됐다. 위령제는 초헌, 제향, 천도송, 진혼굿 순으로 진행됐으며 초헌, 김돈곤 군수, 아현 윤정선 정산향교유도 회장, 종헌 최의환 청양군 의원이 잔을 올렸다. 위령제를 봉행한 김돈곤 청양군수는 “목숨 바쳐 나라와 만백성을 지키려던 백제부흥군 영령들의 넋을 기리면서 백제인의 충효정신과 호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⁹⁾

이처럼 백제는 그냥 패망한 것이 아니라 나당연합군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며 나라를 구하고자 했고 이러한 정신은 이후 임진왜란 때는 의병운동으로, 일제강점기 때는 만세운동으로 이어져나갔다. 이러한 외세에 대한 민초들의 저항의 역사를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청양군 지역사회는 백제부흥군 위령제를 통해 백제인의 강렬했던 구국운동과 저항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두릉윤성의 유적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복원해 나가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림3] 제16회 두릉윤성 백제부흥군 위령제 봉행

자료: 청양군청

참고자료

금강일보(2016. 11. 17), 청양 이춘호 씨, 30여년 공직생활로 얻은 지식 사회에 환원.
금강일보(2019. 03.0 01). 청양군 백곡리 주민들 3·1운동 기적비제(紀蹟碑祭) 봉행.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한민족문화대백과)_두릉윤성, 주류성
대전투데이(2019. 4. 19). 제16회 백제부흥군 위령제 봉행
위키백과_두릉윤성, 주류성
중부매일(2019. 04. 08). 청양 정산3.1만세운동 재현...태극기 '만세물결'.
충청매일(2017. 07. 24). [느림보의 山城, 山寺찾기] 청양 두릉산성 가는길.

9) 금강일보(2016. 11. 17), 청양 이춘호 씨, 30여년 공직생활로 얻은 지식 사회에 환원.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9.10)

호수	발간월	주 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촉
제2호	2015년 7월	신상대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제17호	2018년 1·2월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18호	2018년 3·4월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제19호	2018년 5·6월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1차 산업
제20호	2018년 7·8월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1차 산업
제21호	2018년 9·10월	중국 지방정부의 온라인 정부서비스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제22호	2018년 11·12월	시도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현황 분석
제23호	2019년 1·2월	중국 동북3성 경제·산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제24호	2019년 3·4월	중국 하북성 항일유적지 현황과 시사점
제25호	2019년 5·6월	중국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시사점
제26호	2019년 9·10월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